

이사철 맞은 부동산 시장 매매·전세가 상승

부동산 114 3분기 결산...매매 광주 0.27%·전남 0.2% ↑

에너지밸리·한전공대 기대감...광주 광산·남·서구 올라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지난 3분기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전분기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 추진과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기대감 등 개발호재가 크게 작용하며 오름세가 확대됐고, 전세는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가 낸 '2017년 3분기 권역별 아파트 결산'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3분기 0.27% 올라 지난 2분기(0.0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에너지밸리 조성 추진과 한전공대(한전공과대학) 설립에 따른 기대감 등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전력이 한전공과대학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광산구와 남구, 서구 등 각 자치구별로 공대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광산구(0.46%)와 남구(0.33%), 서구(0.32%)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밖에 북구는 0.05% 상승했고 동구는 변동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면적별로 모든 면적대가 고르게 오른 가운데 66㎡ 미만 구간이 1.67%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다.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3분기 0.20% 상승해 직전 분기(0.11%)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0.9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무안군(0.61%), 나주시(0.59%), 목포시(0.09%), 순천시(0.06%) 순으로 올랐다.

여수시는 지난달 옹전지구에서 분양한 테라스하우스와 오피스텔 등의 청약 호조세가 주변 아파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나주빛가람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는 한전공대 유치전에 적극 나서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면적별로 66~99㎡ 미만 구간이 0.45% 올라 가격 상승을 주도했고 다른 면적들도 모두 올랐다.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전세도 일제히 가격이 상승했다.

광주 아파트 전세시장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철을 대비해 미리 선점하는 수요가 몰리며 0.09% 상승해 전분기(0.0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남구(0.23%), 광산구(0.16%), 서구(0.10%) 등이 올랐고 동구는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올해 5000여가구가 입주하는 북구는 0.04%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전남 아파트 전세시장은 2분기 보합세에 머물렀으나 3분기에는 0.24%로 상승폭이 커졌다.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지역별로 수요에 비해 새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여수시가 1.28%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목포시(0.16%)와 순천시(0.14%)가 상승했고 이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남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전주와 비교해 0.15% 올라 전국에서 상승 폭(전국 평균 0.02% 상승)이 가장 컸다. 광주는 0.03% 올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주방용품 최대 75% 싸게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락앤락 창고 대(大) 개방' 행사를 열고 밀폐용기와 믹서기 등 생활용품 200여가지를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대학생 30% “을 취업환경 더 열악”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선호도 1위는 공기업

4년제 대학생 10명 중 3명은 올해 취업 시장 환경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공기업,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3415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4년제 대학생 5272명을 대상으로 '2017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에 관한 질문에 34.2%가 '작년보다 어렵다'고 밝혀 '작년보다 좋다'(9.1%)는 답변보다 많았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은 37.1%였다.

다만 지난해 시행한 조사와 비교하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18.5%포인트 줄고 '작년보다 좋다'는 답변은 6.5%포인트 늘어 취업환경 체감도는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25.8%가 선택한 공기업이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25.6%), 중견기업(11.1%), 외국계기업(9.6%), 금융기관(6.6%), 중소기업(5.9%)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기업 선호도(25.8%)는 작년(25.4%)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기업 선호도는 지난해 32.3%에서 올해 25.6%로 떨어지며 공기업에 1순위를 내줬다. /연합뉴스

창업기업 사장·세무 실무 설명회

한국예탁결제원 24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 광주지원 오는 24일 오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크리에이티브1센터에서 광주·전남 유망 창업기업에 대상으로 '광주·전남 창업기업 대상 증권발행·상장·세무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거래소 및 서광주세무서와 공동으로 '2017 광주기술창업주간'을 이용해 창업기업들에게 자금조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주총회 개최, 유상 및 무상 증자 방법 등 유가증권 발행관련 실무, 기업공개 및 유가증권 상장실무, 기업이 알아야할 세무

기초 등을 제공한다.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이 열악한 투자환경과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인 탓에 이번 설명회가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향후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창업기업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3.06 (-9.85) ↑ 금리 (국고채 3년) 2.01% (+0.07)

↓ 코스닥 667.10 (-1.32) ↑ 환율 (USD) 1132.40원 (+2.50)

을 경제성장률 전망 2.8 → 3.0%

한은, 4·7월 이후 3번째 올려...내년은 2.9% 제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0.2% 포인트 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 연속 상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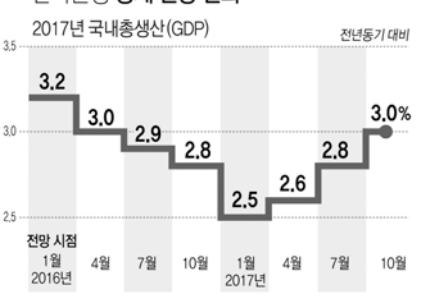
지난 4월 2.6%로 수정해 0.1% 포인트 올렸고 7월에는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은 2.8%를 제시한 바 있다.

한은이 한 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 연속으로 높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세를 탄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전망치는 정부나 국제통화기

금(IMF), 한국금융연구원과 같고 LG경제연구원(2.8%), 현대경제연구원(2.7%), 한국개발연구원(2.6%)보다 높다.

한은이 전망치를 높인 데는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의 결론문에서 "앞으로 국

한국은행 경제전망 변화



자료/한국은행

내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수출이 세계 경제의 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내수도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3%대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로 3년 만에 3%대에 복귀했지만 2015년과 작년에는 각각 2.8%를 기록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로 수정했다. 석 달 전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친환경 100% 순면 목화 생리대

엠에스월드 출시...천연펄프 구조 환경오염도 최소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엠에스월드(대표 권은성)에서 출시한 '허브랑목화랑 만나 해피한 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엠에스월드에 따르면 '허브랑목화랑 만나 해피한 날'은 100% 순면 목화 커머를 적용하면서 생리혈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흡수증을 통과하는 등 흡수기능이 강화된 제품이다.

여기에 탐시트를 부드럽고 보송보송하게 유지시켜주며 순면생리대의 보풀이 일어나는 단점을 보완했다. 생리대 하단에도 특수설계된 천연펄프를 추가하는 등 2중 구조를 갖춰 생리혈 역삼도 방지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일반형 생리대보다 30%가량 두께가 얇다는 것도 장점으로, 통기성 비닐 백시트를 사용해 착용시 축축함과 답답함을 줄였다.

또 라벤다, 로즈마리, 캐모마일 등 허브에서 추출한 아로마 성분을 함유해 여



성의 하복부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항균·탈취에도 효과가 뛰어나 냄새 걱정도 덜었다는 게 엠에스월드 측의 설명이다. 엠에스월드 관계자는 "허브랑목화랑에는 크리스마테린, 함초, 다시마 같은 해양식물을 이용한 신소재를 사용했다"며 "90일 이내에 미생물과 유기물에 의해 자연분해되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엠에스월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국내 여성전문 전시회인 '2017 우먼스페어(women's fair) 학여울 SETEC'에서 '허브랑목화랑 만나 해피한 날'을 선보인다. /박기용기자 pboxe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입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담양군 남면 만월리 만월제비마루 도로점 토지 4409평 감정가 30,000,000 최저가 30,000,000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입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천리 입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